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체계

제1장 서론¹⁾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학교 내외의 경제교육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에 더해 자신의 경제적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와 윤리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 경제교육은 이제까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는 경제 생활의 많은 부분은 학교 교육보다는 청소년 개인이 속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다양한 언론매체, 그리고 동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학교 경제교육이 지닌 앞서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실로 가지고 오는 경제생활의 경험이나 가치, 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요컨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가치적 정향과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을 포괄적으로 經濟文化란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할 때 이 같은 경제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교 경제교육의 시발점이자 도착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까지 이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연구(임천순 외,1990; 구정화,1997; 박창남 a,b, 1999; 맹영임,1999)들은 청소년의 경제적

1) 이 연구는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설문과 면접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상남도 문산 중학교 박호철 선생님과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부의 류재광, 황현주, 안주화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치나 소비 문제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들은 단순히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피상성을 극복하고, 우리 청소년의 경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청소년들이 가진 경제적 불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 유형을 질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경제 문화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연구 주제로 '경제적 불평등' 개념을 선정한 이유로는 이 개념이 우리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청소년 개인의 경제적 효능감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개념의 이해 과정에서는 그 같은 개념에 관련된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병행된다는 매우 상식적이지만, 구체적인 연구의 수준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Buck & Morss(1975), Turiel(1983), Langford(1987) 등의 사회인지(social cognition)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령이나 신체적 성숙과 같은 변수 이외에 그 사회의 가치나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같은 소위 인지자 개인의 가치 판단 관련 변수들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개념의 이해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인지영역에서의 사실적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념이 갖고 있는 가치 판단 관련 내용의 이해 과정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개념의 하나인 경제개념의 이해 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그 수에 있

어서도 작지만 더욱이 경제개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성 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근거로 본 연구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주제로서 중학생들의 경제적 불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 유형을 질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개념이 지닌 가치 내재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가치판단관련 영역에서 러너(M.Learner)와 펀햄(A.Furnham)과 군터(B.Gunter)에 의해 가설적으로 제시된 바 있는 소위 '세상은 원래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믿음'(Just World Belief)'(Furnham and Gunter,1984)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체계

1. 연구의 범위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 개념이 어떤 유형으로 이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연상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대에 관계없이 보다 일반적인 경험의 유형으로서 경제적 불평등 개념과 관련된 사회학 및 경제학의 이론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관련 경험의 내용을 선정하였

다.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들이 채택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하위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 ①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실 영역의 내용
 - ㉠ 부자에 대한 인식
 - ㉡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 ㉢ 직종에 따른 소득차의 인식
 - ㉣ 직위에 따른 소득차의 인식
- ②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관련 영역
 - ㉠ 부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
 - ㉡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
 - ㉢ 상속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 ㉣ 누진세 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2. 논문의 구성체계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서론에 이은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틀을 만들기 위한 관련 문헌의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경제 개념의 인지적 측면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경제사회화 관련 기존의 연구와 경제적 불평등 개념과 관련된 면접문항의 선정을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서 경제학 및 사회학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전자에서는 특히 경제개념의 이해과정을 개념화한 형성범주의 종류와 유형에 주목할 것이며, 후자에서는 경제적 불

평등과 관련된 경제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이론과 같은 사회학적 이론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면접법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의미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함은 물론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내용분석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며, 결론 부분의 시사점은 5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제2장 연구틀의 설정을 위한 관련 문헌의 분석

제1절 분배적 정의 개념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2절 경제이론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개념

제3절 사회계층론과 경제적 불평등

제4절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틀과 분석범주

제2장 연구들의 설정을 위한 관련 문헌의 분석

제1절 분배적 정의 개념의 형성에 관한 연구

(1) 13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의 경제적 필요(economic needs)에 대해 조사한 Siegal(198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 아동일수록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공평하다고 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공평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와 관련하여 두 부류로 나뉘었다. 즉,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류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부류가 그것이다.

또한 Winocur & Siegal(1982)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연령 집단의 청소년들일수록 공평한 분배의 근거로서 가족의 필요보다는 일의 수행에 들어간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을 중시한다는 가설은 지지된 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소득의 분배의 근거로서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을 필요보다 더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요컨대 두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분배의 근거로서 가족의 필요라는 요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평성의 기준으로 약화되고 직업의 성취나 결과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 분배와 관련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혹은 성취 정도에 근거한다고 보았을 때,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아동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소득분배 원리를 더 지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10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배정의 개념의 발달을 연구한 Damon(1977)의 경우에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기초하여 아동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개념도 이와 대응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아동들의 이해과정은 다른 윤리적 개념의 발달과정과 비슷하게 자기 지향적인(self-oriented) 유형에서 타인지향적인(other-oriented)유형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타인지향적인 유형은 구체적 조작의 시작 시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Damon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고 유형화한 분배정의 개념의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하고, 분배의 결과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계

2단계 : 분배의 기준으로 분배대상의 신체의 크기, 성별 혹은 매력의 정도와 같은 외형적인 특징을 중시하는 단계

3단계 : 엄격한 평등원칙의 적용단계, 즉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 같이 가져야 한다는 분배의 기준을 중시하는 단계

4단계 : 분배에 따른 상대방으로부터의 보상의 크기를 중시하는 단계.

5단계 :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필요(needs)를 중시하는 단계.

6단계 : 분배의 기준으로서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등을 중시하는 단계.

(3) 중류계층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공립학교와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난의 원인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비교, 분석한 연구(Furnham, 1982)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설명(절약정신이나 돈의 관리능력 부족,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의 부족)이 우세하고, 종합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중심적 혹은 사회구조적 요인(취업 기회의 부족)을 가난의 요인으로 중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가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의 내용분석과정에서 유형화한 개인주의적 관점(individualistic perspectives)과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s) 및 숙명적 관점(fatalistic perspectives)은 본 연구의 주제인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이해과정에서 가치판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응답을 내용분석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하는데 매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경제이론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개념

경제이론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개념은 소득분배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사실영역의 소득분배이론과 가치판단 관련 영역의 소득분배 이론으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실영역의 소득분배이론은 다시 크게 기능적 분배이론과 계층적 분배이론으로 이원화하여 정리할 것이다.

1. 사실영역의 분배이론

(1) 기능적 분배이론

기능적 분배이론에 속한 제반 모형들은 사회전체의 생산물이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 혹은 그것의 공급자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존하는 생산요소간의 소득분배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가?

둘째, 자본집약도, 소비자의 선호체계 혹은 산업구조 등의 변화와 기술진보와 같은 현상들이 생산요소간의 분배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준구, 1989)

이러한 기능적 분배이론의 두 가지 연구주제는 소득분배의 기본적인 결정원리를 밝히고, 이에 기초한 분배상태가 장·단기에 걸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문제 중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형성 유형의 검토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첫 번째의 연구문제이다.

소득분배의 결정원리와 관련한 기능적 분배이론은 고전과 경제학을 필두로 이후의 주류경제학파들의 이론화과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엄밀성을 갖추게 되는데 그 핵심개념은 한계생산력(marginal productivity)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주 소득 원이 되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윤의 자본의,

지대는 토지나 공급이 제한된 자원의 한계생산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결정원리로서의 한계생산력 이론은 주어진 현상으로서의 임금이나 이윤, 지대의 결정과정을 비교적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결과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 이론은 생산요소 자체의 초기 분배상황의 불평등을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보수적 입장이라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한계생산력 이론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생산요소의 소유자 혹은 공급자간의 소득 차이가 오늘날의 현실적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업의 종류나 직위의 종류에 따른 소득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서로 다른 직업간에 혹은 동일 직종 내의 직위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인식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물어 보는 문항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2) 계층별 분배이론

인적 분배이론으로도 불리는 계층별 분배이론은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사이의 소득분배 양상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일반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는 소득분배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즉 소득분배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얼마나 적은 몫만을 가지고 있는냐,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별 분배이론 중에서 사호타(G.Sahota,1978)의 연구

는 본 연구의 면접 내용을 선정하고, 면접결과를 범주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사호타는 계층별 소득분배의 기존 연구들을 정리, 분석하여 이를 범주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① 능력의 이론, ② 개인선택의 이론, ③ 인적자본의 이론, ④ 교육불평등의 이론, ⑤ 상속의 이론, ⑥ 생애단계의 이론, ⑦공적 소득재분배의 이론, ⑧ 우연성의 이론, ⑨ 보다 완전한 이론 등이다. 이들 이론들의 모든 가설들을 살펴보면 ①에서 ⑧까지의 가설들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⑨에 속하는 이론들은 이러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소득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가설들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호타는 이들 이론들은 다시 ① 능력의 이론, ② 우연성의 이론, ③ 상속의 이론, ④ 개인선택의 이론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는 소득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리는 주류경제학의 개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구조적인,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호타의 재분류조차도 한계를 지니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같은 계층별 소득분배 이론이 본 연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득분배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이해는 기능적 분배이론에서 도출한 직종 및 직위에 따른 소득차의 인식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지만, 계층별 분배이론이 시사하는 바의 한 사회내에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

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회계층의 보다 가시화 된 형태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문제도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둘 째, 계층별 분배이론의 두 가지 큰 축은 인적자본 이론에 근거한 사호타의 분류와 마르크스주의적 모형이다. 이들은 각각 소득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설명함에 있어, 그 같은 현상의 원인을 개인적인 원인 즉 개인주의적인 특성으로 설명하는 범주와 함께 그 원인을 사회구조적, 혹은 제도적인 것에 귀속시키는 사회구조적인 범주의 설정이 의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치판단관련 영역의 분배이론

소득분배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현상과 관련한 가치판단은 어떠한 상태의 분배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 같은 가치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분배 정의론으로 불리는 가치판단관련 분배이론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논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1) 평등주의적 사조 (2) 자유주의적 사조 (3) 공리주의적 사조 (4) J. Rawls의 절충론적인 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평등주의적 사조는 정의의 여러 요소 중에서 평등성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조로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 어떤 요소보다 강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조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며,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공리

주의적 사조는 평등성, 권리 혹은 자유와 같은 개념에 비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라는 척도로써 분배의 정의를 규정하려한다. 앞서의 세 가지 분배정의와 관련한 사조에 비해 현실의 분배문제에 대한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은 앞서의 세 가지 이론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절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려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은 롤즈의 견해처럼 통합적이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대조적인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본 연구의 목적 상 이를 절충하거나 통합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이들 관점들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평등주의적 관점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본래적 평등을 분배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리주의는 '사회적 후생' 혹은 사회적 필요에 대한 기여도를 분배의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의 실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이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중심적인 범주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소득분배의 결정원리로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그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인 범주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제3절 사회계층론과 경제적 불평등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소득분배현상은 소득의 차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되고, 이것은 또한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불

평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사회계층은 소득분배의 격차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 개념에 연결되고 있는데 이를 경제이론의 분류방식을 따라 사실영역과 가치판단관련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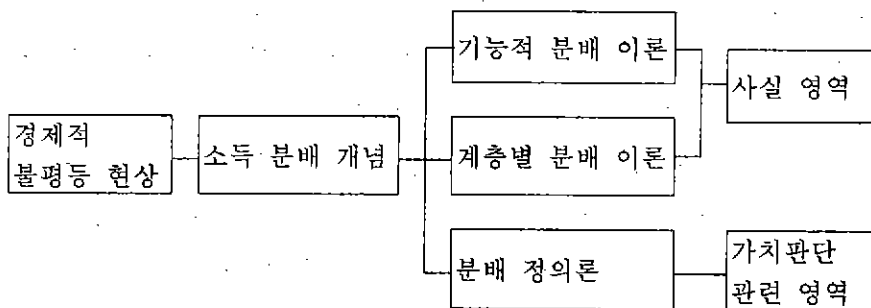
사실영역과 관련한 사회계층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차적 차원의 사회계층 개념이 갖는 의미는 계급(class)과 같은 경제적 의미로서 직업의 종류나 직위의 차이, 그리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득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의미의 사회계층 개념은 그러한 소득의 차이가 사회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정도와 발언권, 가치 있고 눈에 띄는 상징의 획득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권력이나 사회적 명예 혹은 존경에서의 차이로 확대된다. 이것이 사회적 계층이 가지는 이차적 차원의 의미이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보인 구체적인 반응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사회계층에 대한 가치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계층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 즉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계층의 발생원인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성취동기 등의 차이를 지적함으로써 계층별 분배이론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정당화 방식 중 개인주의적 정당화 유형을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계층의 발생원인을 사회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차별화에 있다고 봄으로써 분배정의론의 평등주의 및 공리주의와 함께 부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정당화 방식 중 사회구조적인 인식 유형을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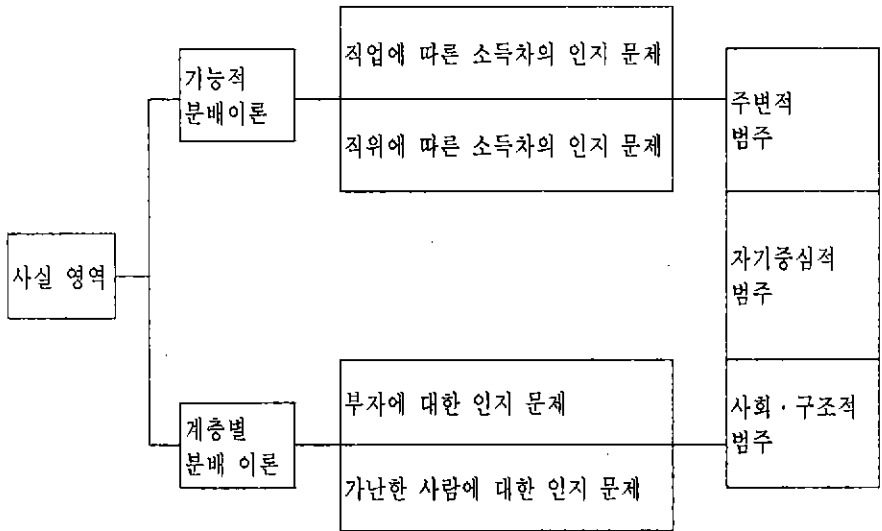
제4절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틀과 분석범주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핵심으로서의 소득 분배 현상에 관련된 경제 및 사회학의 이론들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소득분배현상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요컨대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소득분배와 관련한 경제 및 사회학적 이론을 그 성격에 따라 사실영역의 내용과 가치판단 관련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경제 이론의 경우에는 기능 및 계층별 분배이론은 사실영역에, 분배정의론은 가치판단관련 영역으로 구조화 할 수 있었고, 사회계층과 관련한 이론에서는 부, 권력, 사회적 명예를 핵심개념으로 삼은 논의는 사실영역에, 갈등론과 기능적 관점은 가치판단영역에 관련시켜 구조화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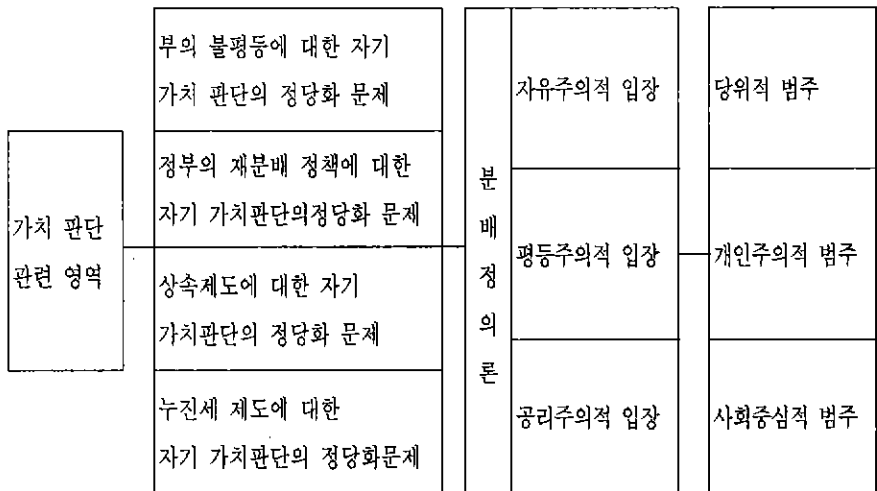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이론의 분석에 터한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조작화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면담의 주제, 그리고 결과로서의 응답 내용을 유형화 할 수 있는 범주들을 관련시킨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II- 1>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조작화



<그림 II- 2> 사실 영역에서의 설문 문항과 내용 분석 범주



<그림 II- 3> 가치 판단 관련 영역에서의 설문과 내용 분석

제3장 연구절차와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 도구 및 내용분석의 준거

제3장 연구절차와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현상 혹은 개념의 이해 유형을 검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특정 현상 혹은 개념의 내용에 대한 결여정도(degree of information deficit)를 판별해 형성의 수준이나 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경제이론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냐를 이 개념에 대한 발달의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다른 하나의 방법은 특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질적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현상이나 개념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개념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냐가 아니라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냐 하는 이해방식의 질적인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법과 병행한 면접법으로, 분석방법으로는 내용분석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1. 자료수집 방법

우선 면접법과 설문지법은 연구방법상 상당한 정도의 질적 차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법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방법으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면접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앞선 예비적 단계의 연구방법으로서의 의의만을 지

는다. 즉,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법은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 의미 있는 면접자의 선정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본 면접에서 사용될 표준면접지의 작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의 前단계로서의 설문지에 의한 자료수집과 그 분석에 의한 면접문항의 재구성 및 면접대상자의 확정이 이루어진 후, 연구팀은 반 별로 2명(남여 각 1명)의 면접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접을 하고 이를 tape-recoding 하였으며,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될 자료 중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하위 내용 중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 개념의 하위내용 중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떤 식의 가치판단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술하고 드러낼 것이다. 내용 분석과정에서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준거의 종류와 의미는 이 장의 3절에 설명되어 있다.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 읍의 남녀 공학인 문산 중학교의 학생이다. 문산읍은 1995년 이전까지는 진양군 문산면이었다가 전국적인 행정개편에 의해 1995년 1월 1일자로 진주시

에 편입되었고, 이해 3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되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2934세대 92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이 1893세대로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회사원(497세대), 상업(295세대), 공무원(92세대), 서비스업(89세대) 순이다. 이 지역은 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통과하여 동부 진주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과수 및 시설 채소의 집단 생산지로 근교 농업이 발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경제생활의 측면에서는 농촌적 특성을 중심으로 도시지향적 성격이 혼합된 주변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산중학교는 이 지역의 유일한 남녀공학 형태의 중학교이다.

구체적으로 면접문항의 타당성과 면접자의 선정을 위한 설문형 조사대상으로 이 중학교의 3개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협조로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은 전체 학생의 응답과 관련한 흐름을 읽고, 심층 면담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차 설문분석의 내용을 기초로 전체 학년의 8개 반에서 남녀 1명씩을 심층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면접 대상자들과는 2000년 10월 한 달에 걸쳐 설문에서 응답된 내용을 근거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과 실제 내용 분석이 된 설문대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남	38	46	51
여	31	47	53
비고	무응답 3 전체 2반	무응답 없음 전체 3반	무응답 3 전체 3반

설문문항의 조사과정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해당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얻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반의 담임 교사를 접촉하여 간단한 사전 훈련을 거쳐 조사작업에 투입하였으며,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현장의 교사와 본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집자료의 분석도 역시 수집과정에 참여한 교사와 연구자의 협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3절 연구 도구 및 내용분석의 준거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도구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사실인식과 가치판단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 면접지(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형태로도 사용되었다)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 면접지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과 관련한 경제학 및 사회학의 이론을 사실영역과 가치판단관련 영역으로 재조직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주제별 문항의 내용은 부록의 내용을 참조)

①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실인지 영역의 내용

- ㉠ 부자에 대한 인식
- ㉡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 ㉢ 직종에 따른 소득 차의 인식
- ㉣ 직위에 따른 소득 차의 인식
- ㉤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의 선택
- ㉥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 재산권의 인식

②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관련 영역

- ㉧ 부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
- ㉨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
- ㉩ 상속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 ㉪ 누진세 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2. 내용분석의 방법과 준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 학생들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 중에서 선택되어 심층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녹취 내용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용분석의 방법

심층면접의 예비단계로서 주관식 설문의 형태로 조사된 내용

들은 관련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별로 부호화 시켰다. 일차적으로는 면접에 참가했던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협력 교사 두 사람이 내용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응답을 범주별로 구분하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범주 구분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차적인 점검을 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은 크게 경제적 불평등 현상과 관련한 사실 영역과 가치판단 관련 영역이란 구분방식에 토대를 두었으며, 각각의 영역에 응답한 내용을 범주화하는데는 사실 영역의 경우에는 ① 주변적 범주, ② 자기 중심적 범주, ③ 사회·구조적 범주가, 가치판단 관련 영역의 경우에는 ① 당위적 범주, ② 개인주의적 범주, ③ 사회 중심적 범주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2) 내용분석의 준거와 예

1) 사실 영역의 내용분석 범주의 의미와 예

① 주변적 범주

주변적 범주란 하나의 현상이 가진 주변적인 특징, 즉 겉으로 드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징으로써 그 개념을 인식하는 유형을 범주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이 많다', '좋은 집에 산다'와 같은 것으로 부자를 인식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주변적 범주는 사회적 현상의 인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보이는 응답유형이다.

② 자기 중심적 범주

어떤 현상이 가진 외형적인 특징으로써만 파악하는 것이 주변적인 범주라면, 자기 중심적 범주는 학생이 그 현상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여 이해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다만, 이 범주에서 학생이 어떤 현상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어서 대단히 주관적이다. 예를 들면,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부자는 근면한 사람이다’ 등이 자기 중심적 범주에 속하는 인식 유형이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학생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유추한 특정 현상 혹은 현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이나 행동방식(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범주는 학생 스스로의 유추활동이 개입됨으로써 주변적 범주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지만, 그것이 개인차원의 주관적인 유추인 점에서 다음의 사회구조적 범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③ 사회·구조적 범주

사회·구조적 범주란 하나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특징, 특히 그 현상이 가진 사회적 의미로써 인식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현상 혹은 내용적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개념을 인식함에 있어 학생들의 유추활동이 개입된다는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적 범주와 비슷하지만, 유추방식에 있어 학생의 자기 중심적이고도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등의 응답은 사회구조적 인식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치판단관련 영역의 내용분석 범주의 의미와 예

① 당위적 범주

옳다, 그르다와 같은 자기의 가치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또는 동어반복적인 방법으로 정당화의 근거를 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치판단 유형은 제시된 문항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그 문제가 당위적으로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묻는 문항에 대해 단순히 ‘옳다’ 혹은 ‘잘못되었다’는 응답만 한다든지, 혹은 옳다고 대답한 학생의 경우,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는 수준에서 ‘원래 그래 왔으니까’ 식의 응답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② 개인주의적 범주

옳다, 그르다와 같은 가치판단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적인 성취정도나 능력의 유무에 그 근거를 두는 범주를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이 자신의 내린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시된 문제와 관련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이를 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 ‘옳다’는 자신의 가치판단의 근거로써,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혹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와 같은 응답유형이 이에 속한다.

③ 사회중심적 범주

옳다, 그르다와 같은 자신의 가치판단의 근거로써 그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나 사회제도적인 조건에 그 근거를 두는 범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 현상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경우, ‘능력은 있어도 학벌이 낮은 사람에게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와 같은 응답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혹은 부의 불평등이 옳다고 대답한 학생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써 ‘자

본주의 사회니까', 혹은 '사회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등으로 표현하는 유형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 제1절 전체 설문에 의한 응답 내용의 개관
- 제2절 심층면접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이해유형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제1절 전체 설문에 의한 응답 내용의 개관

심층면접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진행된 전체 설문 조사의 결과를 개별 문항 별로 내용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을 기준으로 남녀 학생별 응답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심층 면접자들은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었으며, 이 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과 면접과정에서 응답한 내용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전체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과 차이가 나는 점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응답내용은 부록에 표로서 정리해 두었다.

제2절 심층면접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이해유형

1.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사실 영역에 대한 이해유형

(1) 부자에 대한 인식문제

전체 설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듯이 학생들은 부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기 중심적인 이해 유형이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는 주변적인 유형과 사회구조적인 이해유형이 혼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대상이 된 학생들은 부자를 그들의 심리적인 특징이라 여겨지는 것 혹은 행동특성에 의해 정의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한 내용으로는 부자는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거만한 사람’ 등이었으며, 행동특성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정이 화목한 사람’, ‘스스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같은 자기중심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경제적 조건과는 무관한 예, 즉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걱정이 없는 사람’ 등을 부자의 특징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경향은 부자의 특징을 사회적 명예나 권력과 같은 소위 2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과도기적인 특성으로 이해된다. 면접을 통해 특징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자 :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자 : 먼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이 착할 것 같아요.

면접자 : 부자를 정의한다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응답자 :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건강하고요.

면접자 : 부자를 나열대로 정의한다면?

응답자 : 아는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부터 존

경을 받는 사람이요.

(2) 직업의 종류에 따른 소득차의 인식문제

학생들은 직업이 다름에 따라 그에 따른 소득도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왜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이르러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식의 동어 반복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면접자의 계속적 사례적 질문을 통해 가상적으로 직업의 차이에 따른 소득차에 대한 이유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소 논리적인 유추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설문과 면접 대상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의 유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직업에 따른 소득차의 원인을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 등을 주로 꼽았고, 학력이라든지 혹은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라고 짐작되는 응답도 있었다. 응답의 유형으로 정리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유형이 많았고, 여기서도 사회구조적인 응답유형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응답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자 : 직업이 다르면 소득도 다르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자 : 예.

면접자 : 왜 그런지를 나눴대로 설명해 줄래요?

응답자 : 당연한 것 같아요. 직업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또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

은 쉬운 것도 있으니까요.

면접자 : 직업이 다른면 소득도 다르다고 했는데.....

응답자 : 예.

면접자 :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응답자 :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지
 만 어떤 회사는 대학을 졸업해야 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
 사나 변호사와 같은 좋은 직업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존
 경도 받지만, 다른 직업은 그렇지 못해요..

면접자 :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응답자 : 청소하는 사람, 뭐 그런거지요.

(3) 직위에 따른 소득차의 인식문제

직위 개념은 직업 개념에 비해 상당히 어렵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 사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연구진들은 설문과 면접의 과정에 이들 개념의 차이와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해 준 다음, 구체적인 설문과 면접에 착수했다. 직위 개념에 대한 사례를 이해한 이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직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학생들은 직위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이 달라져야 하지만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실제로 많이 함으로, 직위가 낮은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범주가 우세했으며, 여타의 사실 영역 문항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회구조적인 응답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기중심적인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득차의 이유로는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가 있었으며, 점차로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사회구조적 범주의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득차의 이유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일이 중요하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회사가 다닌 헷수가 많기 때문에' 등이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자 : 한 회사나 단체에서 직위가 다른면 받는 월급도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응답자 : 직위가 다른면 보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 서는 그 동안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직위가 높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면접자 : 회사에는 그냥 사원부터 시작해서 과장, 차장, 부장, 전무, 상무, 사장과 같은 직위가 있고, 관공서 같은 데는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직위가 있는데 이런 직위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응답자 : 예

면접자 : 그런 직위에 따라 받는 월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자 :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려야 하고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4)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생들은 부자에게 대해 가졌던 부분적인 반감보다는 오히려 동정에 가까운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빈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주의적 견해가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부자에 대한 것과 유사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특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자기 중심적 유형이 우세하였다. 나아가 특이한 점은 가난한 사람의 인식에 있어 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되는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 대신에 정신적인 결핍을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돈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하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징후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주류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의 속성으로서 직업이나 인간관계, 정신적 여유, 권력, 사회적 명예 등의 사회구조적 요소들을 언급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 면접 사례이다.

면접자 : 가난한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자 :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슬픈 표정이 생각나요.

면접자 :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응답자 : 게으르고, 능력없고 가정이 있어도 다른 각종 문제로 행복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면접자 :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응답자 :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

을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더욱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2.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가치판단관련 영역에 대한 이해 유형

(1) 부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

부의 편재(偏在)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묻는 질문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옳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와 같은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쪽이든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하고 있었고, 비율적으로는 부의 편재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일의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절충적인 측면에서 모든 선택 대안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는 부류도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주의적 범주에 속하는 응답이 우세하나 이것이 발달단계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범주와 선후의 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병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응답유형을 살펴보자.

면접자 : 우리 주위에는 진영이네 집보다 잘사는 집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응답자 :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면접자 :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니?

응답자 :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겠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아예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면접자 : 동식이는 자기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해?

응답자 :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자 : 그대 동식이가 아는 대로 우리 주위에는 아주 잘 사는 부자도 있고, 하루 끼니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응답자 :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 왜 그렇지? 나한테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응답자 :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이고 평등사회인데 이렇게 신분차별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학생은 평등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면접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이후 애매한 입장이 되었다)

(2)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

부의 편재 현상을 사회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정부의 이전지출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물어 본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으며, 옳지 못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서 개인주의적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옳다는 전제하에서 하나의 제한 혹은 조건으로

서 제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옳다고 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정부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우호감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느낌을 면접과정에서 받았다. 다소 절충적인 대답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과 방법을 언급하면서 제한 혹은 단서를 다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면접자 : 명절이나 연말이면 집 가까운 동헌나 읍사무소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가루나 라면, 연탄 그리고 쌀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니?

응답자 : 직접 본 것은 없지만 J.V. 같은데서 많이 보았어요.

면접자 : 이렇게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응답자 : 옳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응답자 : 우선은 우리 모두가 같은 국민이고 또 남을 도우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으므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은 도와주어야 하지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3) 상속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부의 편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속제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상속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우세하

였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은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럴 때 자식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식의 반문 혹은 동어 반복적인 응답을 통해 자신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우세한 상속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개인주의적 범주에 속하는 이유들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문항의 응답에서도 드러나듯이 중학생 집단이 보이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적 경향이 여기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면접자 : 부모가 자식에게 그 동안 자신들이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응답자 :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 왜?

응답자 : 부모가 무조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 일을 알해도 돈이 생기므로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돈을 다 쓰면 그 자식은 일할 능력도 없이 가난해 질 것 같아요.

(4) 누진세 제도에 대한 가치판단

조세제도의 일환으로서 부의 편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 제도에 대한 가치판단을 물어 본 문항이었다.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은 누진세 제도의 자구적인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학생들이 누진세에 대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을 들어 보면 ‘똑 같이 세금을 내면 빈부차가 더욱 커지므로’, ‘빈부차가 커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므로’ 등이 있었으나,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정당화를 통해 누진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학생들도 있었다.

면접자 : 누진세 제도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니?

응답자 : 처음 듣는 말인데요.

(면접자에 의한 설명이 진행)

면접자 :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 많이 거둬들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응답자 : 옳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

응답자 : 같이 부러한다면 보통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면접자 : 누진세 제도란 말을 교과서에서 배웠니?

응답자 : 아직 안 배웠는데요.

면접자 :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니?

응답자 : (면접자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는다)

면접자 : 이제 알겠어? 그런 문헌은 이러한 누진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응답자 :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자 :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

응답자 : 부자도 일해서 돈 벌고 보통사람도 일해서 돈 버는데

물론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그렇긴 하 지만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사회계층의식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은 여타의 사회적 개념의 특성처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 개념도 자연현상에 대한 개념처럼 사실 영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연구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계층의식이라는 사회적 개념의 이해과정은 이와 관련한 사실의 이해과정과 가치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련 경제이론 및 사회이론 그리고 분배정의와 관련한 이론을 통해 조작화하였다.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층의식은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직업과 직위에 따라 소득 차가 나는지, 난나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설문 및 면접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가치판단문제에서는 부의 偏在 현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재분배활동과 누진세 및 상속세 제도 등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을 일단 확인하고 이를 어떤 이유로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문산 중학교의 학생들은 남녀와 학년에 구분 없이 사회계층의식의 사실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자기중심적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보였으며, 가치판단의 정당화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우세함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현상의 인식이 사실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단 및 이에 대한 정당화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개별 범주의

설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실의 이해에서는 사회구조적 범주와 가치판단 및 이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서는 사회 중심적 범주에 속하는 응답이 주류를 이룰 때 비로소 관련 사회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성'을 비로소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 학생들은 사회계층의식과 관련된 사회적 사실의 이해과정에서는 여전히 사회성보다는 '자기식의 이해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 및 자기 정당화 방식에서는 '완고한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 서 이루어진 연구(김경모, 1993)에서 확인된 결과들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데, 이를 근거로 부분적인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층의 존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세상은 원래 정의롭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개인주의적 원칙 고수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절대능력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이미지로 해서 그것이 옳다는 다소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소도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의식의 내용을 결정한 것은 지역이나 그로 인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환경적 변수보다는 학생이 속한 절대 연령이었다라고 판단된다. 이는 자기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그리고 소득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자기 집의 소득을 가운데 수준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사회계층의식과 같은 다소 민감하고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이나 개념의 수업에 있어 중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고려가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회적 현상이 가진 사실적 이해가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벗어나 사회적인 것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가치판단 측면에서는 '경직되고 완고한 개인주의적 판단 경향'이 '좌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보완적인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것의 사회적 측면이 민감할수록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주저 없이 드러내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교의 경제수업 및 사회과 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교실로 끌고 와서 이를 충분히 다루어 주는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실증적 연구방법 위주의 기존의 연구경향과 결론의 피상성을 일정 정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가미된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경제 문화의 일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의 목적이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이 속에서의 경제적 자아실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청소년의 경제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경제적 측면의 사회계층 현상의 핵심적인 요인인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정당화 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사례 연구는 우리의 학생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제교육의 제재와 수업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국제문화재단(1978). 한국의 경제문화.
- 김경모(1993). 한국학생의 소득분배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수(1986). 한국청소년의 직업관. 청년 연구. 제 9집.
- 구정화(1997).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맹영임(1999). 청소년의 진로 의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1999a). 청소년 노동시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1999b).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안귀덕 외(1992). 한국의 청소년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승영(1991). 경제문화와 사람.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이준구(1989).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임천순 외(1990). 청소년 경제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상호(1991). 뼈아픈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장영숙(1989). 개념 이해의 유형적 변화에 관한 발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도근, 조영달(1990). 한국학생의 경제적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 부의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 사회과 교육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연구.
- 황정규 외(1992). 청소년 문화의 변천과정. 한국정신문화원.
- 홍순정(1987). 인지발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작용, 교육심리연구.

- Alves, W .M. and P. H. Rossi(1978). Who get what? Fairness judgements of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4. No.3.
- Armento, B .J. and S. Flores(1986). Learning about the economic world. In Atwoods V.A.(ed.) *Elementary Social Studies : Research as a guide to practice*. Bulletin No.19.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Berti, A. E., A. S. Bombi and R. De Beni(1986). The development of economic notions : single sequence or separate acquisi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No.7.
- Bruner, J. and H. Haste(eds.)(1987). *Making Sense : The Children's Conception of the world*. London : Mathuen.
- Buck-Morss, S.(1975). Socio-economic bias in Piaget's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studies. *Human Development*. Vol.18.
- Burris, V.(1983).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ncepts. *Human Relations*. No.9.
- Cummings, S. and Taebel, V.(1978). The economic socialization of children : A neo-Marxist anlysis. *Social Problems* Vol.26.
-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Bass.
- Danziger, K.(1958). Children's earliest conception of econom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7.
- Emler, N. and Dickison, J.(1985). Children's representation of

- economic inequalities : The effects of social cla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 Feagin, H.(1972). Poverty : We still believe that God helps them who help themselves. *Psychology Today* Vol.6.
- Fox, K.(1978). What Children bring to school : The beginnings of economic education. *Social Education*. No.10.
- Furby,L.(1979).Inequalities in personal possessions : Explanations for and judgements about unequal distribution. *Human Development* Vol.22
- Furnham, A. and M. Argyle(1998). *The Psychology of Money*. Routledge.
- Furnham, A. and B. Gunter(1984). Just World beliefs and attitudes towards the poo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3.
- Furnham, A and Alan Lewis(1986). *The Economic Mind : The Social Psychology of Economic Behavior*. New York : St. Martins Press.
- Furnham, A.(1987).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economic justice :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No.8.
- Furnham, A. and B. Stacey(1991).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Society*. London : Routledge.
- Furth, H.(1980). *The World of Grown-Ups*. New York : Elsevier.
- Huntsman,R.W.(1984). Children's concepts of fair sharing.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13 No.1.

- Hoffman, M. L.(1981). Perspectives on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 of people and things : The role of Affect. In Flavell, J. H. and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ford, P.(1987). *Concept development in the secondary school*. London : Crom Helm.
- Leahy, R. L.(1981).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 Description and comparisons of rich and poor people. *Child Development* Vol.52.
- Learner, M.(1965). Evaluations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1.
- Lewis, Alan(et al.)(1995). *The New Economic Mind : The Social Psychology of Economic Behavior*. Harvester Wheatsheaf.
- Peter, L. and Alan Lewis(eds.)(1996). *Economic Socialization : The Economic Beliefs and Behaviors of Young People*. Edward Elgar Pub.
- Sahota, G.(1978). Theories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16.
- Siegal, M. and D. Shwalb(1985). Economic Justice in Adolescence : An Australian-Japanese comparis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No.6.
- Sutton, R.(1962). Behavior in the attainment of economic concep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53.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cor, S. and M. Siegal(1982). Adolescent's judgements of
economic arrang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No. 5.

부 록

설문지 및 표준면접지

설문지 및 표준 면접지

< 일러두기 >

다음의 질문지는 여러분이 사회과 교과서에 있는 경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 중 소득분배 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적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깊이 생각하여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A.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년 :
2. 이름 :
3. 성별 :
4. 부모님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
어머니의 직업 :
5. 우리집의 경제적 지위는? (상, 중, 하)

B. 다음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용돈은 얼마 간격으로 타 씁니까? (수시로, 주별로, 달별로)
2. 한달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용돈은 대략 얼마인지요?
3. 용돈을 벌기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였습니까?
(있다, 없다)
(아르바이트의 종류 :)
4. 자기 자신이 모아서 저금하는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 없다)
5. 친구에게 물건을 팔거나 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6. 친구에게 돈을 꾸어 주거나 꾸ن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7. 고등학교 진학시 실업계를 택할 예정입니까? 인문계를 택할
예정입니까?
(실업계, 인문계)

C.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보여 주세요.

1.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2.

2-1. 직업의 종류가 다르면 보수의 크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 다르다)

2-2.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3.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3-1. 회사나 관공서에는 여러 종류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보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3-2.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3.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5.

5-1. 다음에 예를 든 것 중에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 | | |
|-------------------|-----------------|
| (1) 많이 배우는 것 |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 |
| (3) 머리가 좋은 것 |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 |
| (5)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 | (6) 운이 좋은 것 |

(순서 : , , , , ,)

5-2. 위에서 예를 든 것 이외에 부자가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6.

6-1.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6-2. 노동조합의 좋은 점과 나쁜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

(좋은 점)

(나쁜 점)

7.

7-1. 우리 주위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7-2. 옳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3.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9.

9-1. 정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9-2. 옳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3.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10.

10-1.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한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0-2.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3.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11-1. 부자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일은 옳은 것일까요? 잘 못된 것일까요? (옳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11-2. 옳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3.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12-1.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크다, 보통이다, 크지 않다)

12-2. 나는 우리 부모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유)

2. 설문 문항의 응답 내용 정리

<중학교 1학년>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1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족 돈이 많고 아들 딸들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12)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구두쇠 같은 성격의 사람(3) 머리가 좋고 재산이 많으면 사회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착하고 남을 위할 줄 알며 경제 적으로도 부유한 사람(2) 마음씨가 착하고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과 판단력이 좋은 사람(2) 돈 많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2) 집안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집(2) 돈이 많고 즐겁게 사는 가정 진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꾸준한 생활을 하는 생활 돈이 많은 사람, 기쁜 일이 많은 사람 마음이 평화롭고, 돈 많은 사람(2)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된 사람(3)	행복한 사람(3)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6) 돈 많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3)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6) 마음이 부자인 사람(4) 집있고 돈 많고 부모님 직업이 든든한 것(3) 가족이 건강한 것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 절약하는 사람 재산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고 집이 멋 지고 이쁜 사람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 어떤 모둠에서 가장 튀는 사람

	남 학 생	여 학 생
C - 2	같다 다 다르다 다같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일에 따라 그 가치가 차이가 나서(5) 일하는 정도가 다르므로(8)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3) 힘든 일과 쉬운 일이 있기 때문(7) 직업이 다르면서 주는 돈도 다르니까(8) 보수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니까 직업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힘들게 피땀 흘려서 했을 때 똑같 이 받아야 할 것 같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6)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2) 능력에 따라 다르다(3) 직업의 가치가 다르니까(3) 그냥(2)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3) 다 받는 돈이 다르니까(2) 노동의 강도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5)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

		남 학 생	여 학 생
	같 다	모두 그 회사를 위해서 이바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다니는 회사인데 같을 것 같다	하는 일은 같으므로 보수는 똑같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C - 3	다 르 다	직업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2) 직위에 따라 하는 일과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13) 일하는 양에 따라 다르다(2)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직위가 다르니까(5) 일하는 사람보다는 지시하는 사람이 힘들 기 때문에 높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3) 직위가 틀리고 하는 일이 틀려서(3)	지위에 따라 다르다(8)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다(6) 직위가 높을수록 보수가 다르다(3) 직위가 높은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위치와 능력이 다르다 사장 맘이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 공부한 만큼 직업이 다르므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남 학 생	여 학 생
		행복하지 못한 사람(2) 돈이 없는 사람(10) 돈이 없고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2) 남을 위하지도 않고 마음도 나쁘고 경제적 으로도 부유하지 않은 사람 하는 일에 불평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고 밥을 굶는 사람(2) 자기를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는 사람 혹은 돈을 위해 도둑질하는 사람 지식이 없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2) 사회적 지위와 돈이 없는 사람 자기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것 불편하고 돈이 없고 돈을 잘 쓰는 사람 돈이 없고 늘 웃음이 없는 가정 왕따를 당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주고 버티는 것 계으르고 돈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6) 아껴쓰고 돈을 모으는 사람(3) 돈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2) 돈없고 집없는 사람(3) 돈 없고 불쌍한 사람(4) 돈이 없고 남에게 베풀수 없는 사람(2)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3) 돈이 많아서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래서 돈을 훔쳐갈 까봐 매일 두려움 에 떠는 사람(2) 행복이 없고 가족 등 없고 혼자 사는 사람 운이 나쁜 사람 모둠에서 가장 튀는 사람 공부 못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

	남 학 생	여 학 생
C - 5	1. 많이 배우는 것(17)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2) 3. 머리가 좋은 것(9)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5) 5.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1) 6. 운이 좋은 것(1)	1. 많이 배우는 것(5)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1) 3. 머리가 좋은 것(6)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11) 5.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2) 6. 운이 좋은 것(4)
	행복, 자기의 특기(2), 자신의 노력(2) 마음씨(3), 운이 좋은 것, 건강 사람을 다루는 방법(2) 절약하는 것, 높은 사람의 신임, 자신의 정 신성	절약하는 것(3), 마음씨(4), 대인관계(2) 운수, 행복 자신의 목표를 실천한 것, 가족의 건강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

	남 학 생	여 학 생
C - 6-1	서로 데모같은 것을 하는 것(4) 모르겠다.(4)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 있는 곳(17)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 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2)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논하며 자신의 의 견을 말하는 것 농부들이 저축하는 곳 불만을 말하는 것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 일거리를 주는 곳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	모르겠다(7)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하여 열심히 일하는 곳(3) 노동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 기 위해 만든 사람들의 모임(2)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5) 여럿이 모여 함께 남을 도와 주는 것(2)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모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함(4) 나쁜 점을 수정하는 곳(2)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한 곳 정보전달 하는 곳 함께 더불어 가는 곳

		남 학 생	여 학 생
C-6-2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7) 모름(9)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3) 서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협동심이 있다(2) 내자신을 위해서 의견을 내세우는 것(2) 좋은 불편함을 없앤다(4) 점 직장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일하게 해 주니까(2) 서로의 좋은점과 나쁜점을 지적해준다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 돈을 받는다 여러 명이 일해서 즐겁다 농부들이 편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	모름(16) 단체이므로 많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4)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3)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준다(2) 한 단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2) 없음 정보전달 여러 사람이 즐겁게 일한다
	나쁜 점	자기 이익만 위해 일한다(4) 대규모 집회가 자주 일어나 혼란스럽다(6) 모름(10)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6) 의견충돌이 심하다(3) 없다(2) 돈을 많이 못받는다(3) 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적게 하는 사람처럼 돈차이가 만나서	모름(19) 없다(3)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4)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2)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챙기기가 힘들다 이익이 동등하다 잘못하면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

		남 학 생	여 학 생
C-7	옳은 것	노력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10)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 것이니까(6) 만약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2)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으니까(3) 집안이 망한 사람도 있지만 집안을 살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 때문에 사람이 정당하게 벌어서 쓰는 방법에 따라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9)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있다(2) 가난한 사람은 그 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자는 그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으니까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잘못된 것	공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10)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 취급하면 안된다 도둑이 들어와서 털어갈 수도 있다 전부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없기 때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일을 시키고 이익을 다 챙겨서	공평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일도 없으니까(3)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도와야 한다(3)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8) 불공평한 현상이다(2) 자기가 낸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놀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남 학 생	여 학 생
C-8		잘못된 일이다(9) 자신이 그 물건이 필요해 훔쳤다면 그 물건의 주인도 그에게는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따라서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3) 남의 물건을 부정하게 얻는 것이고 사람들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니까(2)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4) 훔친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뺏긴 사람은 기분이 안좋아지기 때문(2)	자기의 물건도 아닌데 훔치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9)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10)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4)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파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훔치면 안된다(3) 법에 어긋나기 때문(4)

	남 학 생	여 학 생
C - 8	노력해서 살면 그 만큼 보람이 있지만 흠치면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2) 남의 것을 흠치면 습관이 되어서 계속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7) 자기 인생을 버리기 때문(2) 도둑이 흠쳐가고 싶어서 남의 물건은 허락을 받고 빌려달라던가 하지 그냥 흠치면 남에게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흠치는 일이니까	옳은 일이라면 모두가 흠쳐쓰며 일하지 않을 것이다

C - 9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할 것이고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3) 가난에 굶주리고 있어도 우리 국민이니까 살려야 한다(5) 그 사람이 살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3) 사회는 정부의 책임이니까(5)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5) 같은 나라에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4)	정부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8) 좋은 일이니까(2) 남이 어려우면 조금씩 도와야 한다(4)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3) 자기 힘으로 부족하면 직업을 구해주어야 한다 우리 세상은 가난한 사람, 무자인 사람의 차별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해야지 정부에 계속 의지하면 절대로 자신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단 장애인 제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3)	정부가 안도와 주어도 가난한 사람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잘 살면된다(5) 가난하다고 놀리는 것 같다. 도와주는건 좋은 것인데 그 사람들은 부담을 받을 것 같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정부에 의지만 하게 된다(7) 남이 어려우면 조금씩 도와야 한다(6)

		남 학 생	여 학 생
C - 10	좋은 일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순 없기 때문에 부모가 지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당연하다(14) 재산을 물려 받아서 좋은 일도 하기 때문이다(2)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기부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좋을 일이다 부모님께 물려주신 재산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2) 재산을 당연히 줘야 한다. 우리들 그 집안을 대대로 이어야 하기 때문(14)
	잘못된 일	자기가 일해 먹고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5)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게을러진다(2) 자기가 힘들게 일하여 벌지 않은 거니까(2) 돈은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자식들이 서로 많이 받기 위해 싸우니까(2) 자식의 자립심을 없애고 스스로 자멸을 부른다(3)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재산의 반은 물려 주고 반은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꼭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안벌고 그 부모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4)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야지 재산을 물려주면 재산을 믿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7)
C - 11	좋은 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만큼 베풀어야 한다(9) 세금을 많이 내면 더욱더 절약할 것이다 부자가 더 많이 내야 사회가 평등해진다(4)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기 위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평민보다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8)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5)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3)
	Z질 못 된 일	부자라도 공평해야 타당하다(10) 돈이 많다고 해서 벌금을 많이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7) 같이 내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같은 사람인데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10) 되도록이면 적게 내야 한다(2) 모두는 공평해야 한다(4)

	남 학 생	여 학 생
	크다(23) 보통(10) 크지 않다(×)	크다(22) 보통 (9) 크지 않다(×)
C - 12	내가 더욱더 노력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4)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6)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3) 사회 발전하고 직업도 많이 생기기 때문(2)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모님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2) 좋은 미래에 좋은 형제 그리고 재산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3) 수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도 달라졌기 때문에 있 미래는 더 발전한 사회니까 다 앞으로 컴퓨터로 성공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충고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기술과 방법을 알게 되니까 2세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므로 지금 나의 특기인 춤이 전주에서 1위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잘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3) 노력하면 지금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 옛날보다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더 잘살지 않을까? (이것도 운이 좋아야 되겠죠) 내가 더 커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잘 살수 있겠지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점점 기계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3) 노력하면 안되는 일은 없기 때문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 보다 더 잘 살 것 같다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보다 더 잘 벌 수 있다(2) 저축하면 된다(2) 시대가 바뀌었다 그냥 내가 더 많이 배웠다(2) 머리가 좋아서
	그냥 부모님보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 부모님이 힘든 사회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 부모님보다 열심히 생활할 수 없기 때문 지금 화목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없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2) 우리 부모님께서 넘 다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름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2) 부모님이 더 잘 살아야 한다(2)

<중학교 2학년>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1	돈이 많은 사람(16) 본성, 덕, 인심이 풍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3)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2) 행복하게 사는 사람(4) 모자라지 않을만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돈 많고 잘 살고 형제 간에 우애있게 지내고 행복한 가족(3) 집안 사정은 좋으나 그에 대해 티내지 않는 마음씨 좋은 사람 돈이 많고 부모의 직위가 높은 사람 돈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3) 돈을 피갈이 아끼는 사람 인격과 경계력을 갖춘 현명한 사람(3) 경제적 지위가 좋은 사람(3) 돈 많고 사람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고 집크고 회사하나쯤 가진 사람. 친구가 많다 모름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11)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돈 많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3) 돈 많고 잘 살고 언제나 행복한 사람 돈이 많아야 부자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된다(6)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5)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4) 돈보다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5) 무엇하나라도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가진 사람 남보다 자기가 중요하고 이기주의자. 하고 싶은거 다하고 부자는 이기주의자가 많은 거 같다. 직업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쉬운 일, 위험한 일, 더 중요한 일 등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다르게 주는 것이다. 또 보수를 다른 이보다 조금 올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의무를 더욱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부자겠지만 주위에 자신이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마음이 부자이다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같 다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실력만큼 돈을 받을 것이기 때문	직업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지만 보수의 크기는 같을 거라 생각한다
C - 2	다 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려우면 많이 받고 쉬우면 적게 받는다(17) 높은 사람일수록 월급이 많다고 생각한 다(6)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2)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은 월급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는다(2) 사람은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그 보수가 모두 같다면 직업을 가진 사람 모 두 같은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할 것이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다. 만약 A상점과 B 상점이 있는데 A상점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작게 벌 수도 있다(2) 무응답(2) 없음	직업이 좋고 나쁘고, 가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4)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16)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남을 위해 일하 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직업에 따라 보수의 크기는 다르다고 생 각한다. 그 일을 하고 난 보람의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보수의 크기는 보나마나 다르다고 생각 무응답(3)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3	같 다	한 가족 같은 회사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더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직위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기 때 문에(3) 같은 일을 하기 때문(5) 특히 TV를 보면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 록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응답
	다 르 다	높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24)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5) 경력이 다르기 때문(2)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3)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 무응답(5) 모름	높은 사람이 일을 많을 거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거다(15) 하는 일이 달라서(7) 큰일을 해낸 사람이 보수를 더 많이 받 지 않을까 내 생각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 을 많이 주고 게으른 사람은 적게 주어 야 된다고 생각한다(2) 무응답(2)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4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7) 불행한 사람(2) 돈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3) 돈없고 뺨없는 사람(3) 능력이 없는 사람(2) 돈이 없어서 밥도 못먹는 사람(3) 돈없고 가족없는 사람(10) 돈 없는 사람, 인간성 나쁜 사람(2) 가난한 집을 도와주고 위로 해준다 집이 어려운데도 일을 해서 가난을 극복할 생각은 안하고 포기해서 '이대로 살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적고 부모의 직위가 낮은 사람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나쁜 짓하는 사람 돈은 많지만 악독한(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못배운 사람, 게으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과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무응답 모름(2)	돈이 없고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한 사람(8) 대체로 힘어 없고(직위) 돈이 없는 사람(11) 돈이 없지만 자기일 잘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하지만 주위의 친구 없는 사람 역시 가난하다. 남과달리 하고 싶은거 못하고 못 먹고 남보다 부지런한 사람 돈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6) 자신은 있는데 하고싶은 것을 못하는 사람 밥을 못먹고 세금을 잘 내지 못하는 사람 돈이 없고 외로운 사람(4) 돈 없고 밥을 제대로 못먹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3) 보통 거리에서 구걸을 계속하는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구걸을 하거나 게으른 사람만이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적인 사람(3)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5	1. 많이 배우는 것(17)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0) 3. 머리가 좋은 것(10)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12) 5. 재산을 많이 물려 받는 것 (5) 6. 운이 좋은 것(0)	1. 많이 배우는 것(9)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4) 3. 머리가 좋은 것(2)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17) 5.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3) 6. 운이 좋은 것(3)
	백이 있으면 부자가 되기 쉽다 좋은 선행(4) 능력(2)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끼는 것 가족의 사랑과 행복함 노력(2) 많이 배우는 것(3) 용기가 많은 사람 인격(4) 정치적으로 현명한 사람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2) 인내력 있는 것 성격이 좋고 매너가 있는 사람	배풀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4) 저축, 비겁하지 않을 것, 인심 절약정신, 인간관계(5) 부지런함 자존심 착한 마음씨, 행복한 가정(8)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2)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 어 보는 겸손 성품과 성격, 넓은 아량, 운동을 잘해야 함 정직 만족하는 것이 있는 것 약간의 욕심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6-1	노동을 사고 파는 곳 세금을 내는 사람을 도와 주는 단체 노동자가 모여서 만드는 단체(15) 노동에 대해 일하고 연구하는 곳(2)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4)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등을 되찾고 보호 할 목적으로 만든 것(4) 노동자들의 단체 직업에 뚜렷한 경로가 없고 한마디로 막 노동을 하는 곳 무응답(13) 모름(2)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8) 노동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들어주 고자 만든 단체(3)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얻기 위해서 만든 단체(5) 노동자의 힘을 모으는 곳 일하는 곳 노동자의 돈을 맡기는 곳(2) 무응답(15) 모름(4)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6 -2	노동자들이 모여서 불만사항을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6)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2) 일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말할 수 있다(2)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해준다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놀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2) 협동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3) 회사처럼 작위가 없고 능력이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다 단체활동 하는 것을 익혀 협동심을 기른다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2) 무응답(20) 잘 모르겠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6)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3) 노동자에 대한 특혜(2) 무응답(25)
	너무 사소한 의견은 받아주지 않는다 힘들다(2) 몸이 상할 수 있다 나쁜 것이다 사업자와 정부에겐 곤란하게 한다 이기주의적이다(3) 파업을 주도하여 경제를 어렵게 한다(3) 돈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모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다(3) 매일매일 직업이 바뀌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적성에 안맞는 일을 할 수 있다(2) 개인으로는 힘을 쓸 수 없다 무응답(24)	데모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빠질 것이다(2)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 것 같다 노동 조합을 만들어 놓고 참식을 못하는 건 노동조합을 만드나 마나 다룰 것이 없다 그래서 나쁘다 단체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권리만 주장해서 잘 못하면 노동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노동자를 동정하는 듯한 무응답(30)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7 (무응답 : 4)	부자가 있어야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2) 실력이 되면 부자가 되고 실력이 없으면 가난한 것(15) 부자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3) 부자는 많은 것을 아끼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도 쓸려고 하기 때문이다 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2) 당연하다 이 세상에 가난하란 법도 없고 꼭 부자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실수(회사 부도, IMF)등으로 부자와 가난의 길이 갈린다고 생각한다 부자만 있다면 부자라고 사치만 하게 되니까 그래야 사회 경제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12) 부자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있다. 서로 평등하지 못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7)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 사람끼리는 더불어 살아야 하므로(3)	사람은 평등해야 하기 때문(14)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눠줘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권력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노력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같이 힘든 일을 하는 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 만약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옳지만 그냥 운 좋게 부자가 되고 운이 나빠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2) 다른 이를 멸시하게 된다. 즉 부자가 가난한 이를 멸시하게 된다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기 타		분명하게 판단을 못하겠다/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부자가 못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판단을 잘 못하겠다/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해서 마음은 부자이고 부자지만 걱정이 많다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8	남의 물건을 이유 없이 가져오는 것은 나쁘니까(21) 남에게 부모님이 욕을 들어먹기 때문 자신의 노력으로 물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비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회에 범죄가 생기면 사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경제 수준이 떨어진다. 무응답(5)	자기 물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19)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니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부자의 것만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뜻.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의 마음속 욕심에 의해서 더 큰 것을 훔치기 때문 어릴적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솔직히 물건을 훔치는 것도 노력이 들기 때문 자신이 땀흘려 벌은 돈을 다른 사람이 훔치는 일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나의 물건과 남의 물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으니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꼭 갖고 싶어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선 사업한단 셈치면 될 것 같다. 부자는 아깝지도 않을 거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펄쩍놀러 사서 쓰는데 자신은 흠뻑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응답(2)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9 (무응답 : 3)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라서 모두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 사회적으로 힘들 사람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5)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9)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도와 줘야하기 때문에(9) 좋은 일이니까(3) 가난한 사람은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7) 무응답(2) 힘들게 사는데 솔직히 도와주는 건 좋은점이 다. 하지만 동정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 만 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은 좋다. 서로 이해하고 보살피 주는 일도 하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삶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6) 정부가 도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2) 당연히 옳은 일이다.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다. 왜? 물론 북한도 한 민족이지만, 지금 우리 남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쪽 사람을 안 돕고 한 민족이지만 한때 적이었던 북한을 돕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출발을 할 수 있으니깐 국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좋은 일에 쓴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더 뜻깊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그 르 다	가난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5)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가난한 척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 가난한 사람만 도와준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도와주어도 되지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만 구해주면 되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것이고 그러면 직업도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2)	솔직히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돈 밖에 지급되지 않아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소수의 돈만 지불하기 보다는 부자인 사람들이 나서서 돕는게 좋을 듯하다. 많이 도와주면 일을 게을리 할 것이니 직업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가난한 사람은 고맙다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 다 도와준다면 모두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정부에는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3) 무응답 가난은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3)

문항 내용	남 학 생	여 학 생
C-10 (무응답 : 3)	자녀는 부모의 빚줄이기 때문에(2)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재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8) 그 재산은 간직해야 하기 때문에(2)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2)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2) 자신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키워줄 의무가 있고 아갈 능력이 아직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2) 나중에 돈이 써기 때문 그냥	부모가 돈 번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번 것이기 때문(4) 자기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1)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가게같은 걸 하면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 힘들 때 부모의 재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2) 자식이 부모의 대신으로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 꼭 바르다고만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물려줄 순 없으니까 부모의 심리가 아닐까

문항 내용	남 학 생	여 학 생
C-10 (무응답 : 3)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은 그 재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설사 부자는 안되더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부자가 아니지만 재산은 어느 정도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잘되는 것을 좋아 할 것이어서. 부모는 늙어서 자녀에게 붙어 살게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야 한다. 무응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이 안 매치기 때문	

문항 내용	남 학 생	여 학 생
그 르 다	자식 스스로가 돈을 벌고 살아야 하기 때문(2) 똑같이 노력을 해서 다시 벌어서 살아야 자신의 돈이 얼마나 의미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6)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기 때문에 또 많은 재산이 생긴다고 자신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앞으로의 어려운 일을 잘 헤쳐 나갈 수 없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자기가 번 돈이기 때문 부모가 번 것을 자식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모은 재산은 늙었을 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없이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4) 그 자식들은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은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4)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기에(2) 자식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닦혔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3)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대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형제들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흥청망청 쓰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노후를 위해 돈을 남겨 노후에 자기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 무응답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11 (무응 답: 6)	차지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2)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한다(2)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도 잘 살수 있 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 이다(3) 돈이 많이 있으니깐 그만큼 세금을 내 는 것은 당연하다(9) 그냥 돈 많다고 사치를 많이 하니까 세금도 많이 내어야 한다 세금은 자신이 번 만큼 내는 것이므로 무응답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대가가 필요 하다	돈이 많으니깐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당연하다(11) 자신이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4)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다 똑같이 세 금을 물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그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소득 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 같다.(2)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낸다면 가난한 사람이 살기 편할 것이다(2) 돈이 많다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많이 내 놓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돕고 살자는데 큰집과 함께 권력을 누리면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자의 집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을 많이 켜 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2) 부자나 가난하거나 똑같은 양의 전기와 물 등을 썼다면 같은 돈의 세금을 부과 하는 건 당연하다(2)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3) 그 돈이 많다고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다 사람은 모두 공평해야 한다(4)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럴 수는 없다(5) 부자니까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부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금을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몇%씩 내야 한다	세금은 평등하게 똑같이 내야 한다(6) 모두가 평등해야 하므로(4) 아무리 부자라해도 그렇게 하는 건 옳 지 않다 무응답(2)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크다(23) 보통이다(19) 크지 않다(1)	크다(24) 보통이다(11) 크지않다(0) 무응답(4)
C-12 (무 응 답 : 5)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4) 시대도 발달되었고 나의 능력에 맡는 일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될 것이다(2)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고 능력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5) 무응답(6)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6)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2) 아직 나이도 어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3) 부모님 시대 때에는 일거리가 없고 우리 때에는 일거리가 많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세대인이기 때문에 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재산을 더 부풀릴 수 있다 가난했던 기억을 잊고 싶어서 그냥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작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온 경험으로 옳고 그른 일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다(3) 부모님보다 내가 더욱더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10) 부모님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한층 더 발전했기 때문(4) 우리는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 더 잘 살 수 있다(5)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면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미래는 현재보다 희망이 더 커질 것 같으므로(2) 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장래희망이 뚜렷하지니까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일이고 내가 바라는 일이니까 부모님이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왜 내가 부모님들보다 못살겠는가 무응답
그 렇 지 않 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일이라는 것을 못하고 커서 우리의 일을 예측 못하기 때문(2)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2) 언젠가 불행이 인생 중에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잘 살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 못지 않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시므로 부모보다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고 또 결혼을 해서 낳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게 부모님들 만큼 잘 되지 못할 것 같아서(3) 난 부모님보다 더 잘 살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2) 어떻게 부모를 감히 닮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2) 난 능력이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1	단순히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돈도 많으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인 면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7)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 (2)
	가족이 다 있는 사람, 가정이 화목한 사람 (5)	돈 많은 사람, 명예, 지위가 높은 사람 (5)
	돈이 많은 사람 (17)	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29)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다 (4)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 (3)
	물질적 부보다는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 (2)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 (3)
	돈이 많으면서 행복한 사람 (2)	자기 생활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부유한 사람 (2)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얻은 사람 (2)	돈 많은 것보다는 돈이 조금 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직업이 안정된 사람	돈을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진정한 사람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적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	돈이 많고 자신이 번 돈만큼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돈은 없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진짜 자신이 노력하여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먼저 돈이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돈도 많이 있고 삶이 풍요로운 사람, 즐겁게 다정다감하게 사는 사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친절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속은 비었고, 겉만 멀쩡하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더러운 사람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2	같은 직업이 달라도 보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1) 노력한 만큼 직업도 가지게 되므로, 노력한 사람은 그 만큼의 보수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역시 그 만큼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1)	
	다르다 직업에는 전문지식이나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일에는 다른 일보다 보수가 더 커야한다 (28) 자기가 노력 한만큼 보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분야마다 일하는 환경과 일해온 경험에 있어 보수가 달라야 한다 (5) 학벌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2) 사회적 지위 (1) 회사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르기 때문 (2) 뜨는 직업과 떨어지는 직업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유 없음 (1)	직업마다 지위가 다 다르고 역할도 능력도 다르니까 (8) 사람들의 편견 (1) 직업이 다르다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한 힘과 노력이 다르므로 그 보수도 다르게 나오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9) 연령별로 보수가 다를 것이다. 오래 직장을 한 사람에게는 보수를 많이 줄 것이고 조금의 직장 생활을 한 사람에게 적은 보수를 줄 것이다. (1) 당연히 회사측이나 직장 측에서 주는 보수가 다르니까 (3)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회적 지위 (1) 이유없음 (3)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같 다	노력한 만큼 직위도 가지게 되므로, 노력한 사람은 그 만큼의 보수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역시 그 만큼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1)	
C - 3	다 르 다	높은 직위의 사장이나 과장, 부장 등의 사람들은 괜히 그 만큼의 직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실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보수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33) 자기 자신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1)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 (2) 그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 만큼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2) 하는 일은 없는데 다만 직위가 높다고 해서.. (1) 그냥 다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1)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1) 높은 사람이 대체로 낮은 사람에게 돈을 주기 때문 (2) 이유없음 (2)	능력도 다 다를 것이고, 하는 일도 다를 것이고 지위도 다 다르니까 (30) 일의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1) 힘든 일을 하느냐와 쉬운 일을 하느냐에 따라 보수의 차가 날 것이다 (6)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가 더 높아진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그만큼 보수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력이 보수를 좌우한다면 그 경우는 다를 것이다. (4) 사회적 지위 (1)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자유가 있기 때문에 (1) 회사 사장과 일반 회원의 사는 정도가 다르니까 (1) 이유없음 (3)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4	돈이 없는 사람 (19)	돈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3)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5)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사람 (3)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2)	돈이 없는 사람 (25)
	가족이 없고 가난한 사람 (6)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8)
	성실하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서 사는 사람 (4)	자기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3)
	자신은 언제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갖지 못할 때 (2)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 (4)
	돈은 많으나 행복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2)	나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돈이 없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2)	돈이 많으면서도 늘 없다고 하여 싸우는 것. 그리고, 돈이 있으면서도 불우 이웃을 돕지 않는 것
	돈을 많이 쓰고 지식이 얕은 사람	가족이 가지고 싶은 것을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 힘없이 여기저기 끌려 다니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무응답 (1)
	가난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성격 더럽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1. 많이 배우는 것 (18)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 (2) 3. 머리가 좋은 것 (4)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 (15) 5. 재산을 많이 물려 받는 것 (7) 6. 운이 좋은 것 (1)	1. 많이 배우는 것 (12) 2. 좋은 직업을 갖는 것 (9) 3. 머리가 좋은 것 (3) 4. 일을 열심히 하는 것 (15) 5. 재산을 많이 물려 받는 것 (9) 6. 운이 좋은 것 (2)
C - 5	노력, 근면, 용기 (13) 돈 (2) 가정의 화목 (2) 지식과 능력 (3) 기타 (착한 것, 행복한 것, 정직, 좋은 직 업을 갖는 것, 마음의 안정 등) (10) 무응답 (17)	근면, 성실, 노력 (7) 돈 (4) 가정의 화목 (6) 마음의 안정 (2) 기타 (봉사, 높은 직위와 명예, 신뢰, 원만 한 대인관계 등) (9) 무응답 (22)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근로자들의 모임 (3)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곳, 폐업, 데모를 할 때 결정하는 곳 (3) 노동자들의 연합회 (13)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 는 곳 (3) 노동 단체들끼리 협동하는 것 (1)	노동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든 단체 (7) 몸을 움직여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뭉치 는 곳 (5)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룬 단 체 (2) 노동자들 (2) 노동자들의 연합회 (5)
C - 6 -1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도와주는 곳을 말한다 (1) 직접일을 해서 모인 단체 (1) 노동자들의 회의에 총 책임을 하는 곳 (1) 회사에 잘못된 규정을 데모로 인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조합 (1)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곳 (1) 모름 (19)	각 단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협동하 는 단체 (1) 노동력 협동 (1) 일하는 곳 (1) 잘은 모르겠는데 필요한 곡식이나 가축들 의 사료를 보관하여 필요할 때 필요로 하 는 곳 (1) 모름 (25)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6 - 2	장 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말 할 수 있다 (6) 친선도모, 상부상조 (2)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다 (3) 노동자들을 도와줌 (4) 노동자들의 협동심이 길러짐 (5)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할 수 있다 (1) 일을 하는 것만큼 돈이 나온다 (1)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 무응답 (24)	같은 직업이나 지위 등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3) 서로 힘을 합하여 일을 처리해서 능률적이다 (5)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 보호해준다 (5) 보람과 기쁨, 만족감 (1)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몸과 힘으로 써 돈을 벌 수 있다 (1) 언제든지 혜택이 가능 (1) 노동력을 도움 받을 수 있다 (1)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올릴 수 있다 (1) 무응답 (32)
	단 점	시간 낭비를 하는 점. 직장에서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텐데 (2) 집단이기주의로 사회에 피해를 준다 (6) 폐업, 대모를 한다 (4) 사회 혼란이 올 수 있다 (4)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1) 힘이 든다 (1) 사사건건 시비 (1) 무응답 (28)	파업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 혼란 유발 (4) 자신들이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다 (5) 피곤하고 힘들다 (3) 서로 경쟁을 불게 되는 것 (1) 불이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1) 의견일치가 안된다. 한 번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1) 도둑이 든다 (1) 무응답 (33)

		남 학 생	여 학 생
C - 7 무응답 (4)	옳 은 것	그 사람이 부지런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게으르다면 가난하게 되는 거니까(3)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16) 아끼면서 열심히 자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 부자는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피땀 흘려서 일을 하여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의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2)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므로 부자도 있다(2) 부자는 자기 자신이 개척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 사람이지만 가난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가 나게 되면 자연히 노동력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끼고 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 우리 나라에서 모두가 부자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주식이나 저금을 해 이자나 받아먹고 살 것이다 태어난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	자기가 노력한 만큼해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15) 세상에 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안되고 부자만 있어도 안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7) 당연히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다면 가난한 것은 옳은 것이고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6)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3)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라면 사람들은 서민적인 삶 뭐 이런 것도 느끼기 전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노력한 만큼의 일은 것이기 때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크면 문제가 되지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남 학 생	여 학 생
	잘 못 된 것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인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기 않아서 된 것(2) 세상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5) 모두가 잘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3)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꼭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잘 먹지 못하고 못살기 때문에	부자는 일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 일을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 부자는 대대로 재산만 물려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만큼은 따라 갈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인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가난은 구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살면 불공평하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능력부족은 어쩔 수 없다(7)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부자와 차이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2) 노동자들 중 일하다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로 다쳐 움직일 수 없어 가난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8	아무 노력없이 손쉽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20) 남의 물건을 훔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4) 도덕과 규범,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9)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9) 어려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중에 자라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1) 서로의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1) 무응답 (2)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2) 자기 물건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커서 할 수 있는게 도둑질만 할 수도 있으니까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 (8)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므로 나쁘다 (2)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 (16) 사회 혼란 야기 (2) 도덕, 법에 어긋나니까 (3) 늘 배워왔고 우리에게 박힌 지식이기 때문에 (2) 무응답 (2)

	남 학 생	여 학 생
C - 9 무응답 (2)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너무 심한 빈부격차는 없어져야 한다 혼자 먹고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3)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3)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8)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5)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지만 주위환경이 나빠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가 확실히 도와야 한다(5)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나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그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돕고 일으켜 주어야 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정부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때문(6)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면 나라가 잘 살지 못하고 부자인 사람들만 이익을 얻기 때문에(2)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살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4) 가난한 사람을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야 밝은 세상이(4)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해졌다면 그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지만 이중 대부분이 집안의 형편과 노력을 했는데 우연한 실패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생각된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 된다면 모두가 편하게 살지 않을까 부자들만 잘 살 순 없기 때문에 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가난하면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옳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민이 가난해지면 나라도 가난해지므로

	남 학 생	여 학 생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당연하다.(7)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가난한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아서(11) 노동자들 중 일하다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로 다쳐 움직일 수 없어 가난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2) 사람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있다(2)

	남 학 생	여 학 생
잘 못 된 것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만 믿고 살게 될 것이고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4)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도와주면 계속 어려워지고 돈만 낭비될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일을 관리 못할 수도 있다. 도와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에서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줄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그냥 이웃에서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면 그 만큼 성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실수, 운이 없어 가난해 진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욕심 등으로 가난해 진거라면 도와주는 것은 안됨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아직 한 번 도와주면 그것만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자립심을 키워 줄 수 없다(3)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 스스로가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 - 10.	옳다 고 생 각 한 다 자식이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부모가 잘 살았으면 자식도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2)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버신 돈을 자식에게 물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1)	자식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그리 잘못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만큼의 세금을 정부에게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받는 일은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1) 조금은 돈을 갖고 시작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4) 자기 부모가 번 재산을 자식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19) 자식된 도리이다 (1) 부모 마음대로 (1)
	잘 못 되 었 다 고 생 각 한 다 부자 집은 자손 대대로 부자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 지기에 유산 상속은 없어져야 한다 (5) 자식 스스로 돈을 벌어서 돈의 가치를 알도록 해야 한다. (6) 자신이 노력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4) 재산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주어야 한다. 사회에 주면 국가가 더 잘 살수 있다 (1) 자기가 직접 베푸는 것이 보람있기 때문이다 (1) 손쉽게 돈을 번다면 그건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1) 무응답(1)	자기가 벌어야지 보람있다 (4)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식을 무능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 마음대로 쓰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니까 (11) 부모 때문에 자식이 평생 평안하게 살면 너무 억울하다. 세를 이은 부가 계승된다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4) 자기자식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또 그 집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1)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C-11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나라도 예산이 많이 모여 어려운 사람에게는도 쓰여 질 것이고, 학교에도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23) 국민들의 당연한 임무 중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세금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같은 액수를 내면 어떨까? 부자를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기준해 내면 부자들의 이익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적게 가지면 적게 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번 만큼 돈을 많이 세금에 부과하면 조금이나마 평등해 질 수 있으니까 (12) 그래야 사회의 경제가 유지될 것 같다	부자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26)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보통사람들과 같이 세금을 거두면 균형이 깨질 것이다(18)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깐
잘 못 된 일	부자나 가난한 집안이나 같은 사람인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4) 자기 스스로 열심히 벌인 부자에게 노력하지 않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4)

문항 번호	남 학 생	여 학 생
	크다 (27) 보통 (18) 크지 않다 (2)	크다 (29) 보통 (20) 크지 않다 (1)
	부모님이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오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2)	더 많이 배워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5)
	부모님은 어릴 때 많이 배우지 못했다. 지금 나에게는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8)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22)
	확신을 가지기 때문 (6)	꼭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니까 (3)
	자기 노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 (16)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9)
	사회가 옛날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 (2)	산업이 발달하므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난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1)	부모님 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잘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2)
C - 12	아버지보다 잔머리가 잘 굴러가기 때문 에 (1)	무응답 (2)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좋은 직업을 갖는다 (1)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모름(1)	
	우리 부모님이 피 땀흘려 번 돈을 물질적으로는 넘을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못 넘을 것 같다 (1)	부모님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나는 할려는 노력을 안한다 (2)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려고 돈을 버는데 나는 놀 것 같아서(4)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1)
	내가 크면 몰라도 지금은 세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경험에 필요하므로 (1)	지금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집도 아니다. 이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부모님을 난 존경한다. 내가 커서 결혼을 하여 우리 가정을 지금 우리 집정도의 가정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1)
그 렇 지 않 다	나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운도 없고 해서 (1)	

3. 설문 응답 학생들의 부모직업 일람표

1학년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1		
2		초등 급식소 일용직
3		식당 종업원
4		공무원(우체국)
5		농업
6	가공업(떡공장)	
7	강남엔지니어링 근무	가사
8	건축업	가사
9	건축업	가사
10	건축업(목수)	미싱
11	건축업(목수)	가사
12	건축업(목수)	초등 급식소 일용직
13	건축업(목수)	가사
14	건축업(목수)	문구점
15	경남산림환경 연구원	일반성우체국 근무
16	공무원	공무원
17	공무원(문산읍사무소)	서울우유보급소
18	공무원(문화예술회관)	회사원(교보생명)
19	공무원(영오우체국장)	공무원
20	공무원(진성면사무소)	가사
21	교회목사	가사
22	군인(상사)	가사
23	농법	고졸
24	농업	농업
25	농업	농업
26	농업	농업
27	농업	가사
28	농업	농업
29	농업	가사
30	농업	농업
31	농업	농업
32	농업	농업
33	농업	중졸
34	농업	
35	농업	농업
36	농업	상업(실비)
37	농업(단감)	가사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38	농업(단감)	가사
39	농업(단감)	농업(단감)
40	농업(단감)	농업(단감)
41	농업(단감)	가사
42	농업(비닐하우스)	농업
43	농업(비닐하우스)	가사
44	농업(비닐하우스)	화장품가게
45	농업(비닐하우스)	가사
46	농업(비닐하우스)	농업
47	농업(비닐하우스)	농업
48	농업(비닐하우스)	진양고 급식소
49	농업(시설원예)	농업(시설원예)
50	대연정공 근무	카페트공장 근무
51	렌트카 운전	분식점
52	목수	농업
53	무직	식당 종업원
54	사회사업	가사
55	상업(리어카장사)	가사
56	상업(포장마차)	상업(포장마차)
57	시내버스 운전수	가사
58	운수업	가사
59	운수업	가사
60	의료보험 관리공단	가사
61	일광전기	
62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63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64	일용직 노동자	가사
65	자동차수리	가사
66	정비업	가사
67	중장비 운영	가사
68	축산업	식당 종업원
69	카센타 운영	가사
70	한국방송공사	가게(술다방)
71	회사원	가사
72	회사원	고졸
73	회사원	가사
74	회사원(아스콘공장)	농업

2학년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1		
2		농업
3		상업
4		식당종업원
5		
6		일용직
7	개인택시기사	동복식당운영
8	건축업	
9	건축업	
10	건축업	주부
11	건축업	
12	공무원	농업
13	공무원	주부
14	공무원	
15	공무원	주부
16	공무원(기능직)	
17	공업	
18	기사	설계사
19	남용건설 근로자(목수)	동복식당종업원
20	농업	
21	농업	
22	농업	농업
23	농업	
24	농업	
25	농업	
26	농업	농업
27	농업	
28	농업	
29	농업	
30	농업	
31	농업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32	농업	농업
33	농업	농업
34	농업	주부
35	농업	
36	농업	
37	농업	
38	농업	농업
39	농업	주부
40	농업(과수원)	회사원
41	농업(과수원)	
42	농업(과수원)	
43	농업(과수원)	농업
44	농업(과수원)	
45	농업(과수원)	
46	농업(과수원)	농업
47	농업(과수원)	
48	농업(과수원,하우스)	농업
49	농업(비닐하우스)	
50	농업(비닐하우스)	
51	농업(비닐하우스)	
52	농업(축산업)	식육점운영
53	농업(하우스)	농업
54	농업(하우스)	주부
55	농업(하우스)	농업
56	농업(하우스)	농업
57	당구장	
58	대연정공 근로자	대연산업근로자
59	모종판매 회사원	88스포츠키로자
60	목공업	
61	목수	주부
62	목수	농업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63	목수	
64	목수	농업(하우스)
65	목수	
66	문산농협냉동기사	
67	문산읍 예비군 중대장	
68	문산택시기사	
69	분식점운영	분식점운영
70	사업(LG자동차)	피아노학원장
71	상업	
72	상업	주부
73	상업(비닐판매)	
74	상업(생크제조업)	
75	상업(춘천닭갈비)	상업
76	선원	
77	운수업	
78	운수업	
79	운수업	
80	운수업(개인화물)	미용실운영
81	이용업	
82	주유소	
83	진양유체설비경영	
84	최과기공사	주부
85	회사원	주부
86	회사원	식당운영
87	회사원	
88	회사원	주부
89	회사원(대동)	주부
90	회사원(대성)	회사원
91	회사원(삼우건설)	

3학년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1	/	/
2	/	가사
3	/	요식업
4	/	일용직
5	/	분식점
6	/	/
7	가내공업	가내공업
8	건축업	농업
9	건축업	/
10	건축업	/
11	건축업	/
12	건축업(목수)	가사일
13	건축업(목수)	가사
14	건축업(목수)	가사일
15	공무원	상업
16	공무원(경남문화예술회관)	교보생명근무
17	공무원(경남의료보험조합)	/
18	공무원(교사)	가사
19	공무원(기능직)	비닐하우스
20	공무원(면사무소)	가사일
21	공무원(임업시험장)	공무원(우체국)
22	공무원(진양보육원)	가사
23	공무원(진주시 교육청)	농업
24	교회전도사	/
25	노동	/
26	농업	농업
27	농업	/
28	농업	농업
29	농업	농업
30	농업	농업
31	농업	농업
32	농업	농업
33	농업	농업
34	농업	농업
35	농업	요식업
36	농업	농업
37	농업	농업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38	농업	농업
39	농업	농업
40	농업	농업
41	농업	농업
42	농업	가사
43	농업	농업
44	농업	농업
45	농업	농업
46	농업	농업
47	농업	농업
48	농업	농업
49	농업	농업
50	농업	농업
51	농업	농업
52	농업	농업
53	농업	농업
54	농업	농업
55	농업	농업
56	농업	농업
57	농업	농업
58	농업(과수원)	과수원
59	농업(과수원)	과수원(배)
60	농업(과수원-단감)	과수원
61	농업(단감)	과수원(단감)
62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3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4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5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6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7	농업(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68	농업협동조합 근무	과수원(단감)
69	농협직원	/
70	대광공업 회사운영	/
71	동양 시멘트 경비원	가사일
72	랜트카 운전기사	분식점 운영
73	목사	극동피아노 학원원장
74	목축업(염소)	식당 종업원

일련번호	부 직 업	모 직 업
75	문산택시기사	/
76	버스기사	식당
77	버스정비	가사
78	상업	상업
79	상업	상업
80	상업	상업
81	상업	상업
82	상업(철물점)	상업(다방)
83	성직자(교회)	가사일
84	식당	식당
85	요식업	요식업
86	요식업(중화요리 식당)	요식업(중화요리 식당)
87	용접공	가사일
88	원불교 성직자	원광 어린이집 원장
89	이발사	/
90	조선소에 다님(울산)	식당운영
91	주유소경영	/
92	중개인	가사
93	진주 전기회사 근무	보험회사 근무
94	카센터운영	/
95	카인테리어경영	농업
96	토목공사	문산 초등급식소에서 일함
97	한일토건대표	/
98	회사원	공장 근로자
99	회사원	농업
100	회사원	상업
101	회사원	/
102	회사원	가사일
103	회사원	/
104	회사원(경남기업 생산부차장)	/
105	회사원(대연산업)	회사원(진양농산)
106	회사원(정암산업)	분식점
107	회사원(진주 고려 정밀)	농업
108	회사원(현대)	노래연습장경영